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97 72465 870009 11
ISSN 2465-8707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vol.29 2017 2/4호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2017

2/4호

vol.2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0년

사회적기업과 함께 한 10년
사회적기업의 오늘
사회적기업의 내일

th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 · 8층
www.socialenterprise.or.kr
Tel. 031-697-7700
Fax. 031-697-785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www.socialenterprise.or.kr

발행일
2017년 8월 31일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7 · 8층
www.socialenterprise.or.kr
Tel. 031-697-7700
Fax. 031-697-7853

기획 · 디자인
주식회사 지지씨에스

사진 · 취재
피정우 작가

인쇄
보현토탈프린팅

본지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07 {10th} 2017

CONTENTS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2/4호 VOL.29

04

18

36

40

46

10 Years Together

TOGETHER
04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행사
06 운명공동체의 산물, 협동 _ 도우누리
07 가치를 만드는 과정, 협동 _ 자바르떼
08 이 사회에 필요한 덕목, 자립 _ 베어베터
09 포기하지 않는 가치, 자립 _ 오티비크리에이티브
10 사람을 움직이는 힘, 문화 _ 추억을파는극장
10 인간을 인간답게, 문화 _ 꿈꾸는씨어터

Social Enterprise Today

PRESENT
14 탐방취재 _ 윤리적 소비 투어
16 적당히 벌어 잘 살고 있다 _ 남부시장 청년몰
17 '전주엄마'라 불러다오 _ 노송밥나무 협동조합
17 비빔빵의 맛있는 등장 _ 전주빵카페
18 아이쿱생협이 만들었다는 _ 구례자연드림파크
20 동물의 행복을 바라는 _ 구례자연드림파크 공방

Gallery

SE GALLERY
22 한지와 나전칠기

Social Enterprise Tomorrow

FUTURE
26 사회적기업 미래를 열다 _ 임팩트 투자
28 임팩트 투자 국내 현황
30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두 남자를 만나다

OVER SEA
34 해외 임팩트 투자의 흐름

Summer Special

휴(休) & 식(食)
36 안락한 고택에서의 休, 구름에 _ 행복전통마을
37 스페인의 정열을 담은 食, 떼레노 _ 오요리아시아

SEASON GOODS
38 e-store 36.5 _ 온라인에서 득템하자!
40 store 36.5 _ 안산점 그랜드 오픈!

NEWS &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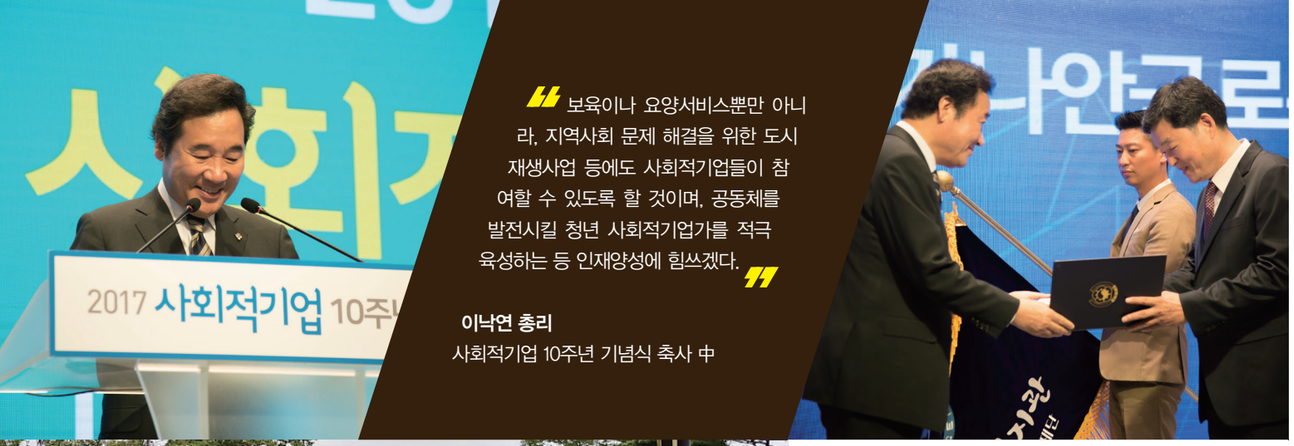
42 **NEWS**
44 **Q&A**
46 **CULTURE**
48 **BOOK**

10 years together

사회적기업 그 10년의 기록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100년의 원동력이 될 가치가 있다.
사회와 세상을 바꾸는
함께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다.

10주년 기념식 유공 포상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주)베어베터
(주)오티비크리에이티브
(주)추억을파는극장
꿈꾸는씨어터(주)



"보육이나 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에도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동체를 발전시킬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적극 육성하는 등 인재양성에 힘쓰겠다."

이낙연 총리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식 축사 中

"아직 GDP 대비 0.25%에 불과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경제 규모를 향후 10년 내 GDP 3%로 끌어올리고 10만 사회적기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을 사회적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고 아시아를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

최태원 SK회장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기조 연설 中

10th Anniversary

2007-2017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7년

애플 아이폰, 제주올레길, 소녀시대,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시네마엔젤(문화소외계층 지원모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공통점은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등 각각의 분야에서 대단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역사는 모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에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2007년은 사회적경제분야에서도 큰 파도가 태동한 원년으로 기억된다.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며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목적은 오로지 이윤창출이라는 맹목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통해서도 공공의 이익과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실제로 사회적기업들은 그 믿음을 경제 생태계 내에서 구현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7년, 사회적기업들은 심각한 경제 불황 속에서 경제 안정화와 사회적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고, 지난 10년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함께 한 10년, 함께 할 100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

지난 6월 23일 열린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을 시작으로, KBS 열린음악회, 사회적경제 박람회, 거북이 마라톤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중 백미는 단연 10주년 기념식에서의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포상'이었다. 6월 28일에 열렸던 시상식은 지난 10년간 상생의 공동체를 일궈온 그들의 눈물겨운 땀방울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수상한 사회적기업 및 기업가들, 그 영광의 얼굴들의 수상소감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36.5 2호와 3호에 나누어 소개한다.

협동[協同] cooperation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낡은 가치가 협동조합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근로자가 곧 주인이 되는 이상향의 일터
바야흐로 21세기형 협동이 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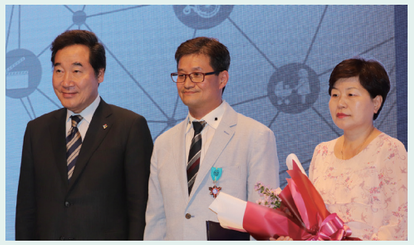
사회적 프랜차이즈 도우누리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 산업포장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그 자체로 한국형 사회적경제의 역사다. 2008년 취약계층 여성들로 구성된 자활공동체(산모서비스사업단)로 출발해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거듭났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국공립이용시설(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을 위탁받은 전국 최초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됐다.

현재 도우누리는 재가요양 및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푸른돌봄센터', 장애 아동의 발달치료를 돕는 '광진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와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구립능동꿈맞이어린이집' 등 4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원 320명 중 220명이 직원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동세 이사장은 적자로 허덕이던 시립중앙노인전문요양원이 2년도 안돼 흑자를 낼 수 있었던 비결로 협동조합의 특성인 경영 투명성을 꼽았다. 3개월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공개했더니 직원들도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사실 민 이사장은 90년대 중후반부터 지역사회단체를 이끌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년간 협동의 가치를 추구해 온 베테랑 중 베테랑인 셈이다.

"이제는 사회적협동조합들 간의 협동과 연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업종은 달라도 사회서비스라는 목표는 같기 때문이죠."



민 이사장이 생각하는 기업들 간의 협동이 9월에 현실화될 예정이다. 중곡동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을 리모델링해 영락없는 '사회적기업타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1층에는 더마실카페와 광진생협, 2층엔 더불어내과, 3층엔 도우누리법인과 늘푸른돌봄센터, 4층엔 광진주민연대와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이 입주한다고 하니, 기업들의 협동시너지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도우누리에게 '협동'이란?

철학이자 신념이다.
단순한 협업체가 아닌
운명공동체의 산물이다.
협동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다른 가치를 발견해야한다.

소감한마디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선배 사회적기업가와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축과 부끄러움이 공존한다고 할까요? 이 상은 개인상이지만 개인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320명, 우리 조합원들이 만들어 낸 상입니다.

자바르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소감한마디

매우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조합원들의 연대와 협력, 협동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초대 대표님도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고요, 덕분에 자바르떼 잔칫날이 됐습니다.

자바르떼에게 '협동'이란?

구성원들이 같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협동은 일을 나눠서 하는
분업이나 협업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Job+Arte)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2004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시작한 자바르떼는 2005년 비영리민간단체를 거쳐 2007년 말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노리단에 이어 두 번째 인증기업이자 사회적기업 초창기 멤버로 착실하게 자리를 다져왔다.

자바르떼의 목표는 문화소외계층의 창조적인 자기 문화활동과 문화공동체 실현을 돕고,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단순히 경제적 약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육체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주도적으로 문화향유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지역아동센터, 자활기관,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신나는 문화예술 교육'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5월부터 경기 지역 45곳에서 이 프로젝트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자바르떼는 문화예술의 어느 한 분야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연극, 음악, 미술, 풍물, 만화, 퍼포먼스 등의 다양성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2008년에 입사해 2012년부터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동근 대표는 2013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자바르떼는 사업 다양성에 대한 몰입도 제고와 여러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을 나누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했다. 전환 초창기에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도달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준비위원회에 2015년부터 참여하면서 또 다른 협동을 준비하고 있다. 자바르떼는 예술인, 기획자, 지역문화활동가, 자원활동가들의 문화 성취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도 협동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자립[自立] Self-reliance

언제부턴가 자립은 미션 임파서블이 되고 말았다.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는 너무도 힘겨운 이야기다.
그들을 기회의 사각지대에서 안전지대로 이끌어 줄
우리의 영웅, 톰 크루즈가 절실히 필요하다.

베어베터에게 '자립'이란?

좋은 일자리이다.
발달장애인이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소감한마디

베어베터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직도 미흡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제도적 보완 등 필요한 조치가 계속 잇따랐으면 좋겠습니다.

BEAR.BETTER

(주)베어베터 –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므로 당연히 이윤을 추구한다. 일자리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익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타 사회적기업과도 성격이 조금 다른 기업이 있다. 베어베터. 이 회사는 오로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사업을 하고 이윤을 창출한다. 즉, 이윤을 위한 고용이 아닌, 고용을 위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NHN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정호 대표와 이진희 대표는 곰(Bear)을 닮은 발달장애인이 더 나은(Better)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아 베어베터를 공동 설립했다. 2012년 명함, 카드, 책, 포스터 등의 인쇄 관련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커피콩, 빵 · 쿠키, 화훼, 카페 사업 등으로 꾸준히 영역을 확장했다. 발달장애인들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신 설비에 아낌없는 투자를 했다. 이 과정에서 2012년 예비사회적기업,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베어베터의 미션은 이익이 제로(0)가 될 때까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겁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즐거움과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근무했던 사원들이 타 기업에 고용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베어베터의 직원 240명 중 200명이 발달장애인이고, 201개 기업에 상품을 납품해 지난해 4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2년 매출액 7천만 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장률이다. 베어베터의 매출이 오르면 오를수록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발달장애인이 늘어난다. 베어베터는 전국 발달장애인 20만 명을 모두 고용하는 날까지 곰처럼 우직하게 걸어가고 있다.

오티비크리에이티브에게 '자립'이란?

개인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립이다.
경제적 자립은 추후의
문제일 뿐.

소감한마디

영광입니다. 회사 동생들이 저보다 더 좋아해 주더군요. 저도 사실 모범적인 청소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좋은 일로 부모님께 연락드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OTB creative

최근준, (주)오티비크리에이티브 대표 – 국무총리 표창

오티비크리에이티브는 처음부터 취약계층 청소년의 고용지원을 목적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었다. 사인 스피닝(Sign Spinning)이라는 거리를 주무대로 한 신개념 게릴라성 옥외광고, 익스트림 스포츠와 퍼포먼스가 합쳐진 광고기법을 국내 최초로 들여온 홍보마케팅 기업이었다.

그런데 사인 스피닝에 흥미를 느낀 청소년들을 전문가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들의 고용 및 자립지원과 교육에 힘을 쏟게 된다. 지금은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 사인 스피닝보다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타 기업과의 직업 연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고.

최근준 대표에 따르면, 우리 주변에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의 아이들, 학교를 잘 나가지 않고 심지어 전과도 있는 위기청소년, 결별한 부모님이 서류상으로 이혼하지 않아 행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청소년 등이 기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 대부분은 대학을 가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 공부도 공부지만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정서적 인간관계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회사는 이 친구들에게 동아리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 내에서 저는 대표가 아니에요. 그냥 형입니다."

오티비크리에이티브의 '오티비(OTB)'는 '옥탑방'의 영어 이니셜에서 따왔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학창 시절 방황을 모두 경험했기에 그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는 최 대표. 그의 꿈은 청소년들이 현실적인 자립을 배울 수 있는 직업학교를 만드는 거다. 미래의 '교장 형'이 이끄는 직업학교가 해리포터의 마법학교보다 훨씬 더 재미있으리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본다.

문화[文化]

Culture

문화는 놀이이다. 제대로 놀지 못하면 아프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놀이터는 어디인가.
가고 싶은 곳, 즐길 수 있는 곳, 꿈꿀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문화가 숨 쉬는 놀이터다.

김은주, (주)추억을파는극장 대표 – 국무총리 표창

종로 낙원상가 4층, 구 허리우드 극장에 위치한 실버영화관은 어르신들이 블록버스터급으로 사랑하는 멀티플렉스다. 고전영화를 상영하는 실버영화관으로만 알려져 있으나, 주변에 어르신들을 위한 추억의 카페, 박물관, 음악교실, 공연장 등을 지속적으로 오픈했기 때문에 멀티플렉스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추억을 파는 극장 김은주 대표는 업계에서 알아주는 혁신적 사회기업가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실버영화관을 세계 최초로 열어 성공을 거두었고, 끊임없이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저는 돈에 대한 셈은 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셈만 합니다."

김 대표는 2009년 개관 당시 책정했던 관람료 2천 원을 끝까지 인상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의 성공 척도는 어르신들의 반응이다. 어르신들이 영화를 보고 나가실 때의 표정을 보며 혼자 울컥할 때가 많다고 한다. 또 어르신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람도 얻고, 아이디어까지 얻는다고.

반짝반짝 김 대표 아이디어의 화룡점정은 오는 9월, 낙원상가 5층에 문을 여는 사이다텍! 이곳은 춤이 치매예방에 좋다는 사실에 착안해 만든 어르신 전용 클럽으로, 콜라텍의 문제점을 해결한 청정 댄스 공간이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 대표의 기획력과 추진력으로 종로는 지금, 문화 1번지, 영화 1번지의 위상을 되찾고 있다.

추억을파는극장에게 '문화'란?

사람을 움직이는 큰 힘이다.
특히 감정 소외계층인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커다란 위로를 가져다주고,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다.

소감한마디

저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준 상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꿈꾸는씨어터(주) –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꿈꾸는씨어터(주)는 전통타악을 중심으로 '가 · 무 · 악 · 극'의 다양한 장르 융합을 통해 새로운 공연문화를 창작하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이다. 전통공연의 실연에서 멈추지 않고 우수한 전통예술이 동시대인과 함께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보다 더 대중적이고 새롭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다채로운 기획 및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지역의 문화예술전용극장인 '꿈꾸는씨어터'는 창작의 산실로 정평이 나있으며, 〈퓨전마당놀이 최진사댁 셋째딸 신랑찾기〉, 〈넌버벌퍼포먼스 BEAT UP〉, 〈힐링퍼포먼스 쾌지나코리아〉 등의 창작 브랜드 작품을 배출했다.

2009년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을 거쳐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꿈꾸는씨어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전문인력 고용 창출과 교육, 문화향유 취약계층 공연 초대 및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문화가 아닌 올바른 것을 찾아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라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문화'를 창조해야 하는 거죠."

꿈꾸는씨어터 김강수 대표는 아직도 할 일이 참 많다고 말한다. 지역 중심의 안정된 공연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기존의 공연 콘텐츠도 브랜드화해 좀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꿈꾸는씨어터는 '성공을 통한 완성형'이 아닌, '성취를 통한 진행형'을 꿈꾸고 있다.

꿈꾸는씨어터에게 '문화'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행위.
사회적경제 안에서의 문화는
우리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성이 아닌
가슴으로 느끼게 해준다.

소감한마디

사회적기업 10주년 행사에서 받게 된 상이라 더욱 감사드리며 감회가 남다릅니다. 사회적기업의 모토처럼 앞으로 100년을 이어갈 행복한 예술 일터, 지역 선순환 공연예술환경 그리고 사회적경제 가치의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Social enterprise today

소비에 대한 물음 여행에서 답을 찾다

우리는 나쁜소비 전성시대에 산다.
과소비, 충동소비, 모방소비가 판치는
어지럽고 복잡한 소비세상을 벗어나
착한소비를 찾아 여행을 떠났다.
윤리적 소비의 오늘을 누리고 살아보았다.

윤리적 소비 투어
남부시장 청년몰
노송밥나무 협동조합
전주빵카페
구례자연드림파크

탐방취재 '오늘을 가다'

윤리적 소비의 메카 '구례자연드림파크' 학생들과 함께 한 1박 2일간의 윤리적 소비.

이른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여행 가는 날 내리는 비처럼 불편한 것도 없지만 다행히 여행의 기대와 설렘까진 막진 못했다. 게다가 난생처음 만나는 사람들과의 여행이라니... 무더위 속의 첫 만남보다는 비의 선선함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며 집결지인 사당역으로 향했다. 이번 여행을 진두지휘할 아이쿱(icoop)생협 김효섭 매니저는 빨간관광버스 앞에서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오전 9시를 조금 넘겨 참가자들이 모두 모이자 버스는 출발했고, 그와 동시에 김효섭 매니저가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번 1박 2일간의 여행 〈떠나자! 윤리적 소비 투어〉는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겨레신문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윤리적 소비 공모전 10주년을 기념해 윤리적 소비 현장을 직접 찾아가 경험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이 윤리적 소비를 단순히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방문하고 경험함으로써, 윤리적 소비가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가깝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콘셉트의 투어인 것. 따라서 이번 여행의 주인공은 학생이다. 참가자 구성도 학생 13명, 교사 1명, 학부모 1명, 스텝 2명, 기자 3명 등 총 20명으로 단출하게 꾸려졌다. 관광버스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마이크 돌려가며 자기소개하기가 아닐까. 학생들의 소개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건 참가 계기가 대부분 엄마의 추천(또는 등 떠밀기?)이라는 사실. 이유야 어쨌건 학기보다 더 바쁜 여름방학에도 짬을 내어 투어에 참가한 학생들이 대견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어른에게도 아리송한 윤리적 소비를 학생들이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잠시 후 버스는 첫 번째 목적지인 전주로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여전히 비가 차창을 툭툭 두드리고, 참가자들은 하나 둘 고개를 툭툭 떨구기 시작하는 가운데 윤리적 소비 투어라는 다소 생소한 여행도 그렇게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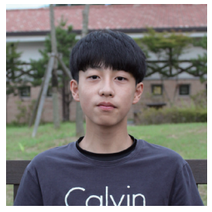
윤리적 소비투어
1박 2일 고고~~

청년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53 남부시장

천년누리전주제과(전주비빔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45

구례자연드림파크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용산로 107-66 물류센터

<< INTERVIEW



김규민 | 지산중학교 2학년

엄마가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엄마가 왜 아이쿱생협 물건을 쓰시는지 알게 됐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제 먹은 치킨하고 사이다가 짱 맛있었어요.

김성예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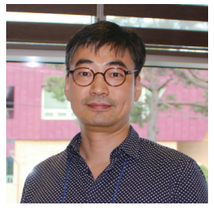
저는 학교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베트남과 무역업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에 관심을 갖게 됐고,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알게 되어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윤리적 소비란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소비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다음에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무역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용수빈 | 경희대학교 2학년

저는 경희대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장입니다. 이번 투어를 통해 제가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특히 우리 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같은 것들에 대해 많은 힌트를 얻었어요. 제가 청년이다 보니 아무래도 청년몰이 가장 친근하게 다가왔고, 전주빵카페 대표님이 사회적으로 좋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견학한 모든 곳에서 저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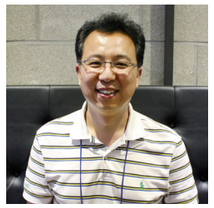
신동협 | 학부모

저는 고등학생 아들에게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이번 투어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보다 제가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친환경 제품이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투어를 통해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니까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23만 조합원들의 힘과 그들이 추구하는 상생의 목표의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인범 | 현암고등학교 교사

윤리적 소비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이번 투어의 가장 큰 수확이라면 역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윤리적 소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줄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리적 소비란 실천의 문제이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 줄 철학이 담긴 소비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전주빵카페 대표님의 말씀이 지금도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데요. 저도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과 함께 가슴 뛰는 일을 하겠습니다.



김효섭 | 아이쿱생협 매니저

이번 행사의 취지는 학생들이 글로 배우는 윤리적 소비에서 벗어나서 직접 경험하게 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소극적일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잘 참여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진행자로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윤리적 소비 투어는 윤리적 소비 공모전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이벤트성 행사인데요, 나중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봐야겠지만 이 정도 성과면 매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적당히 벌어 아주 잘 살고 있다 **남부시장 청년몰.**

경부고속도로 안성 부근을 지나자 비가 잦아들더니 전주에 진입하자 완전히 그쳤다. 구름이 남아있어 따가운 햇살을 막아주니 "거, 견학하기 딱 좋은 날씨네"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왔다. 전주터미널에서 광주 학생 3명을 태우고 도착한 첫 번째 견학지는 지역 명물인 남부시장 청년몰이었다.

전주 남부시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양길로 접어든 곳이었다. 그런데 일부 청년들이 상점들의 간판정비를 시작으로 시장에 젊은 감각을 불어넣기 시작했고, 마침내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년몰이 만들어졌다. 청년몰은 총 10개 건물 중 유동인구가 적어 빈 점포가 많았던 6동 2층에 자리 잡았는데, 초창기 2개 점포로 시작해 현재 3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청년몰은 아기자기한 점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홍대거리의 축소판 같았고, 곳곳에 새겨진 인상적인 문구의 그라피티를 통해 청년들의 재기발랄함을 느낄 수 있었다. 평일 오후 시간이었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걸로 보아 지역 관광지로 제법 입소문이 난 모양이었다. 투어 일행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가게는 '소소한 무역상'과 '아모르페루아노'였다.

소소한 무역상은 박종현 대표가 한 달에 한 번 외국에 나가 현지의 물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곳으로, 인기 아이템은 재활용이 어려운 파쇄종이를 업사이클링해 만든 씨앗엽서. 물을 적셔두면 싹이 자라난다고 하는 씨앗엽서는 특히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페루인 마르코씨와 한국인 로사씨 부부가 운영하는 페루 전통상품점 '아모르페루아노'는 페루의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페루 전통악기, 악몽을 막아주는 드림캐처, 알파카 털로 만든 인형, 페루 화가가 그린 작품 등 모든 상품들을 페루에서 직접 공수해왔다고 한다.

이밖에도 청년몰 1호점이자 고양이 테마카페 '카페 나비', 다양한 향과 디자인의 소이캔들과 디퓨저, 향초 등을 판매하는 '두린캔들' 등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청년몰에만 관광객들의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시장 자체가 분리된 듯한 아쉬움을 느꼈고, 향후 신규 청년 상점들은 청년몰을 벗어나 전통상점과 좀 더 적극적으로 어울린다면 남부시장 전체의 상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업사이클링(Up-Cycling)
재활용(Re-Cycling)을 넘어 기존 제품에 디자인과 기능 등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것.

'전주엄마'라 불러다오 **노송밥나무 협동조합.**

청년몰을 견학하는 사이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고, 투어팀은 서둘러 전주시 노송동에 위치한 '노송밥나무 협동조합'으로 향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이자 마을기업으로, 지역 내 마을공동텃밭에서 재배한 질 좋은 식재료에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져 지역 명물로 거듭났다고 한다. 이곳은 비빔밥을 주메뉴로 채식뷔페, 청국장 등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메뉴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우리는 화려하진 않지만 영양만점 채소비빔밥으로 허기를 달랠 수 있었고, 한복순 이사장님의 찰진 설명으로 노송밥나무 협동조합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비빔밥이 떨고 있다 **비빔빵의 맛있는 등장.**

아무리 배가 불러도 식후 디저트를 빠뜨릴 순 없는 법. 투어팀은 요즘 전주에서 가장 핫하다는 천년누리전주제과 '전주빵카페'를 방문했다. 전주시에서 노인과 장애인, 여성 가장 등과 함께 빵을 만들면서 돈을 버는 전주빵카페는 전형적이면서도 매우 바람직한 사회적기업이다.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전주 명물 비빔밥을 응용한 비빔빵을 특허 받아 월매출 1억 원을 찍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빵카페는 비빔빵 외에도 전주초코파이, 우리밀 발효빵, 쑥마늘빵 등 32가지 종류의 빵을 판매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12명과 장애인 5명, 취약계층 청년 2명, 여성 가장 1명 등 총 20명이 힘을 합쳐 제빵하고 있다.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한 전주빵카페 장윤영 대표는 손님들로 가득 찬 매장을 피해 투어버스에 올라 그 바쁜 와중에도 10분 이상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취약계층 100명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많은 분들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역경제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장 대표의 포부는 그의 옷차림만큼이나 밝고 정열적이면서도 에너지가 넘쳤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이윽고 여기저기에서 비닐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콤달콤한 비빔빵 속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예능프로그램 '알쓸신잡'에서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극찬한 전주비빔빵의 맛은 어떨까. 한 입 베어 물자 친환경 고추장에 버무려진 15가지 이상의 신선한 재료들이 쏟아져 나온다.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흘러내릴까봐 재빨리 속재료를 푹풍 흡입한다.

야들야들한 식감과 함께 밀려오는 한국적인 포만감. 빵은 또 어찌나 부드러운지. 역시 우리 밀의 위대함인가? 학생들도 게 눈 감추듯 한 빵 뚝딱 해치우는 걸 보니 어린 입맛에도 맞나 보다. 와... 이쯤 되면 전주비빔밥집들 긴장해야겠다.

Tour 2 구례자연드림파크

아이쿠! 여기가 아이쿱생협이 만들었다는 그곳? **구례자연드림파크.**

전주에서 한 시간 가량 달려 윤리적 소비 투어의 최종 목적지이자 윤리적 소비의 메카 '구례자연드림파크'에 도착했다. 곧바로 김효섭 매니저의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됐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23만여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이 직접 출자와 기금 참여를 통해 조성한 국내 유일의 친환경유기가공식품단지다.

지난 2011년 10월 라면공방을 시작으로 2014년 4월 그랜드 오픈을 했고, 현재는 24개의 공방과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공장이 아닌 '공방'이라는 표현을 쓴다. 공장처럼 대량생산 방식이 아닌 조합원들의 요구에 맞춰 정갈한 주방처럼 정성 들여 생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자연드림파크는 공방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구례군민과 관광객들의 애정을 듬뿍 받고 있다.

구례군 최초의 전국 동시 개봉 극장을 비롯해, 휘트니스센터, 비어락하우스, 레스토랑, 휴센터, 각종 체험장을 구비하고 있는데, 특히 야외광장에서 2015년부터 열리고 있는 락 페스티벌은 자연드림파크의 문화 전매특허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2015년 국가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2016년 YB, 김창완 밴드, 장미여관의 라인업에 이어 올해(8월 19일 개최)는 YB, 부활, 김경호, 크라잉넛 등 유명 락밴드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내 굴지의 락 페스티벌로 자리 잡았다.

오리엔테이션 후, 투어팀은 숙소를 배정받았다.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2층 침대와 협소한 공간을 상상했는데 콘도 수준 이상으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놀랐고, 무엇보다 일반 콘도나 펜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극성수기에도!)이어서 더 놀랐다.

사실 이곳의 거의 모든 이용료는 일반적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다. 락 페스티벌 입장료가 4만 원이라니 '이 가격 실화냐?' 싶다(15년에는 2만 원, 16년엔 3만 원).

드디어 저녁식사시간! 자연드림파크 내 식당으로 갔더니 한식뷔페가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다. 식당의 모든 음식들은 조합원들이 유기농으로 생산한 쌀과 식재료로 만들었다고 한다. 식사 후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겼다. 당연히 공정무역수입 커피콩으로 만든 커피다.

어른은 **수제맥주,** 애들은 **사이다로 깊어가는 구례의 밤**

투어 첫날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교제의 시간. 수제맥주집인 비어락하우스에서 어른들은 수제맥주로, 학생들은 생협에서 만든 사이다로 목을 축였다. 역시 생협에서 만든 치킨, 피자, 스테이크 등으로 푸짐한 야식을 즐겼고, 전주에서부터 호강했던 위장은 연신 행복한 비명을 질러댔다. 비어락하우스에서는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인디밴드와 클럽 DJ를 초청해 클럽데이를 연다. 마침 이날도 클럽데이였지만 만석인 나머지 아쉽게도 공연은 볼 수 없었다.

어느덧 해가 지고 풀벌레 소리가 또렷이 들리기 시작한 풍경 속에서 한가로이 산책하는 가족단위 관광객의 모습이 보였다. 어쩌면 이 근처에 유명 관광지가 없다는 사실이 관광객 입장에서는 커다란 장점일 수도 있겠단 생각을 했다. 뭐든지 직접 보고 인증샷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고, 먹고, 걸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이 마을이 더없이 평화롭게 느껴졌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기마저도 '윤리적'인 구례의 밤을 호흡하며 꿀잠을 청했다.

한눈에 보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면적 | 약 149,336㎡
누적 생산금액 | 약 1,236억 원
근무 직원 수 | 479명
(2016년 6월 기준)

동물의 행복을 바라는
당신은 진정한 윤리적 소비자.

다음 날 오전 8시쯤 느지막이 일어나 사우나로 향했다. 숙소 안에도 샤워 시설이 있지만 좀 더 넓은 공간에서의 쾌적한 샤워를 원한다면 사우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사우나 안에 비치된 치약, 비누, 샴푸 등은 모두 친환경 제품. 부디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욕재계 한 후, 식당에 가서 아침식사를 했다.

10시부터의 일정은 자연드림파크에 위치한 주요 공방 견학이었다. 이번 윤리적 소비 투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법한 프로그램이다.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가이드분(생협 이사님이다)의 안내에 따라 공방 견학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유정란 공방'이었다.

아이쿱생협의 닭들은 Non-GMO(유전자 미변형 농산물) 사료를 먹고 자라며, 비좁은 우리에서의 강제 배란이 아닌 자유롭게 뛰놀며 교미해 건강한 유정란을 낳는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된 유정란은 생산유통인증시스템을 통해 원란 입고 단계부터 물품 출고 단계까지 생산 이력 및 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건강한 젖소에서 얻은 신선한 우유, 유산균이 살아 숨 쉬는 요거트와 치즈를 만드는 '우유공방'에서는 유제품의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자연드림파크에서는 젖소를 어떻게 키우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 100% 무항생제 원유를 얻어 관리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한국인의 식탁은 밀이 지배한다! **우리밀의 힘**

베이커리와 만두를 만드는 '우리밀공방'에서 생산하는 빵과 케이크, 만두는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100% 우리밀로 만든다. 속재료는 무항생제 우유, 유정란, 천일염, 유기농 설탕까지 모두 프리미엄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니, 설명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었다. 만두의 경우, 우리밀과 채소, 두부 등 유기농 원재료로 빚었으며, 안전성과 생태계까지 고려하는 독자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심지어 채식주의자도 만두를 즐길 수 있도록 '유기채소만두'까지 출시했다고 하니, 생협이 소수의 소비자를 위해서도 얼마나 애쓰고 고민하는지 알 수 있었다.

마지막 견학지는 자연드림파크의 터줏대감이자 제1호 공방 '라면공방'이었다. 라면 역시 우리밀로 만들고, 신선한 기름에 튀기기 위해 산가(Acid Value)가 높아지면 곧바로 기름을 교체해주며, 국내산 재료의 건더기 수프는 합성첨가물을 최대한 줄인다고 한다.

생협 라면은 유통시스템도 획기적이다.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소비자가 구입 가능하게 하고, 유통기한은 법적 기준보다 높은 3개월 내로 단축했다. 또한 종이박스를 없애 비용을 대폭 줄이는 등, 여러모로 건강한 라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라면공방의 한 편에는 방명록이 전시돼 있었다. 살펴보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과 유명인사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인물들이 아이쿱생협이 이루어낸 결과물에 한 목소리로 응원을 보내는 모습에서 소비자 개개인들의 협동과 단합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윤리적 소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모든 견학을 마친 투어팀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자연드림매장에 들러 즐거운 소비를 하고 버스에 올랐다. 쇼핑한 물건과 아이쿱생협에서 준비한 선물로 가방이 묵직했다. 그러나 묵직한 건 가방만이 아니었을 거다.

이번 여행은 소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바람직한 소비에 대해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또 윤리적 소비란 결코 어렵거나 생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1박 2일 동안 투어팀은 오로지 윤리적 소비만을 하지 않았던가. 소중한 내 돈이 나를 위한 소비는 물론 이웃과 환경보호에까지 일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 윤리적 소비란 절대 멀리 있지 않다는 김효섭 매니저의 말을 상기하며 버스에서 내렸다. 어제 처음 만났지만 윤리적 소비 안에서 부쩍 친해진 우리는 "곧 다시 만나겠지" 하고 악수를 나누고는 다시 냉혹한 소비의 세계에 발을 내디뎠다.

우리의 발이 되어 주었던 빨간관광버스는

'쿱버스 한국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에서 대절했다고 한다. 쿱버스는 적절한 배차 시스템으로 안전한 서비스 제공은 물론 운전기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어쩐지 안전감이 느껴지더라니…

SE Gallery

알고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도 여느 예술작품에 뒤지지 않는다.
상품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성까지 아우르는 고운 자태와 맵시는
때로 보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굳이 인사동 갤러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 SE 갤러리에서 사회적기업이 만든 전통공예제품의 정취를 느긋하게 즐겨보자.

한지 천연 닥 섬유질을 가공하여 원사를 만들고, 그 원사로 원단을 만든 후 천연소재인 쪽, 감, 황연을 사용하여 천연염색을 하면 척 보아도 곱다는 말이 절로 나는 빛깔이 나온다. 사단법인 한지나라공예문화협회에서는 고급 친환경 한지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유럽의 권위 있는 지류 복원 전문기관에서 문화재 복원력 인증서를 획득하며 그 우수성을 인증받은 우리 한지의 다양한 변화를 만나보시라.

(사)한지나라공예문화협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76길 8-1
053-555-3345
hanjiworld.com

한지 사각접시 만들기 2,500원
컵받침 만들기 2,000원

3단 서랍장 DIY세트 42,000원

손거울 만들기 2,500원

나비매듭(2개입) 1,000원

나전칠기 나전칠기 보석함은 자개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붙여 작업하는 만큼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완성품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다양한 빛깔의 천연 자개에서 꽃과 새, 나비가 절삭되어 태어난 모습은 화려한 아름다움에 감탄을 자아내고, 조화롭게 배치된 모습은 한눈에 보아도 정성이 가득 담겨있다. 품격 높은 나전칠기에 취해보자.

(주)나누리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아이테코 505호
031-511-5754
www.nanuri57.com

이조경대
240*160*120(mm), 300,000원

5단 서랍 보석함
290*150*222(mm), 500,000원

반닫이
515*265*380(mm), 가격 문의

쌍합 나비 보석함
168*83*83(mm), 80,000원

「사회적기업의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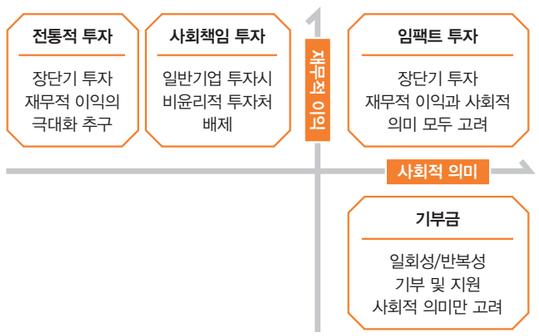
Social enterprise tomorrow

내일의 상생 위한 투자의 힘찬 도약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황금을 낳는 거위만을 쫓았던 투자자들이
사회적 가치와 사회문제에 눈을 돌렸다.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착하고 현명한 투자,
임팩트 투자의 모든 것을 짚어본다.

IMPACT INVESTING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들은 지난 10년 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오며 이제 본격적인 성장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기업 또는 소셜벤처들이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착한 돈이 메마른 소셜 생태계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돈에 눈 멀었던 투자자들, 사회적 가치에 눈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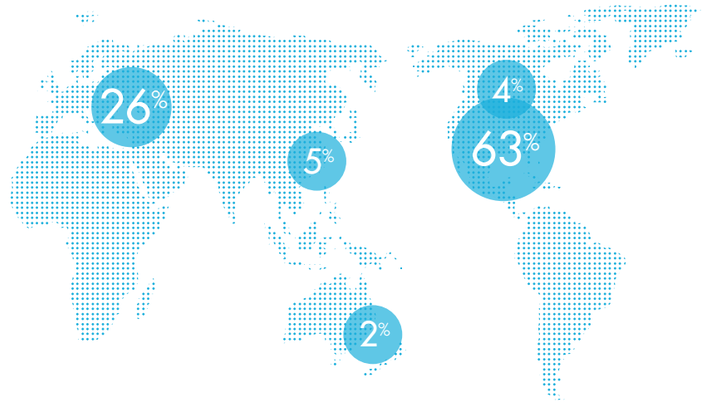
과거 사회문제 해결은 정부나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의 몫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어디에나 존재했고, 그 문제를 사회적기업들이 훌륭히 해결해주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오며 이제 본격적인 성장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기업 또는 소셜벤처들이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단기간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의 특성 탓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착한 돈이 메마른 소셜 생태계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바로, 임팩트 투자라는 이름으로.

이왕 하는 투자, 임팩트 있게!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사회영향투자)는 재무적인 성과를 넘어 긍정적인 사회 · 환경적 영향(Impact)을 창출하는 자본 투자를 의미한다. 자선과 투자의 중간영역에 위치하고 실제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위해(나쁜 기업)한 투자를 배제하는 소극적 의미의 사회책임투자(SRI)와도 구별된다. 사회적기업의 부족한 재정문제는 물론, 가난과 질병 퇴치, 사회 안전망 구축,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환경 보호,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본인 셈이다.

주요 기관의 임팩트 투자 정의

기관	정의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재무적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익(Social Return)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기관에 투자하는 것
GIIN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 글로벌 임팩트투자네트워크	재무적 수익을 창출함은 물론 사회,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기관, 펀드에 투자하는 것
WEF World Economic Forum / 세계경제포럼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 ·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는 측정 가능해야 함)을 미치는 투자 기법



글로벌 임팩트 투자 현황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모 증가

임팩트 투자란 용어는 2007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회의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의에서 록펠러 재단은 임팩트 투자를 '측정가능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결과를 위한 의도적인 투자'로 정의했고, 이후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800만 달러(약 430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기관 J.P.모건(Morgan)과 함께 임팩트 투자자의 국제네트워크 단체인 '글로벌임팩트투자네트워크(GIIN,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의 설립을 지원해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사회영향(Impact) 측정 및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규모는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팩트 투자를 자본시장에서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세계 임팩트 투자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약 70조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2014년(53조 원)과 비교하면 30% 넘게 급증했고, 2013년(9조 5000원)에 비해서도 3년 만에 8배 성장했으며, 2020년이면 400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적인 투자 시장을 살펴보면, 2014년 초 기준 미국이 63%로 전체 임팩트 투자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유럽(26%), 아시아(5%)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북미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임팩트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인식이나 활성화가 미흡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이 밀집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해외 원조 자금을 통한 제한적 임팩트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J.P.모건은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임팩트 투자 시장이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만 약 740억 달러(약 82조 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임팩트 투자 사례

투자기관명	내용
오미디야르 네트워크	이베이 창업자 오미디야르가 세운 투자 네트워크. 주요 투자 분야는 교육, 신기술, 포용적 금융,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현재 약 200여 곳의 영리 및 비영리 스타트업에 투자 중.
첸-저커버그 유한회사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가 세운 유한회사.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과학, 기술, 교육, 지역 공동체 단위의 정책과 운동을 통한 지원 등의 분야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역점.
케이스 파운데이션	AOL 창업자인 스티브 케이스와 그의 부인 진이 함께 설립. 직접 투자 외에 스타트업을 위한 각종 자료 연구와 투자 기회의 제공을 통해 임팩트 투자 생태계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음.
빌&멜린다게이츠 재단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 글로벌 보건의료 확대와 빈곤 퇴치, 미국 내 교육 기회 확대와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음.

임팩트 투자 국내 현황

국내 임팩트 투자는 지난 2008년 이재웅 대표(다음 설립자)가 설립한 'sopoong(소풍)'을 필두로 SK행복나눔재단, D3쥬빌리, MYSC, Crevisse 파트너즈, HGI 등 민간 투자 기관들이 설립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투자 방식은 크게 내부 자금을 활용해 임팩트 투자에 나서는 것과, 공모형식(사모펀드형태)으로 외부 자금을 빌려와 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영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벤처캐피털 기능에 역점을 둔 것으로 나뉜다.
이 외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임팩트 투자로는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정부의 초기자금 투입으로 사회적기업의 R&D, 시설비 등 투자를 위한 민간자금 조달기반 마련)', '서울시 사회투자기금(2012년 서울시가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조성하여 현재 총 723억 원 규모로 운영 중)' 등이 있다.

국내 임팩트 투자 규모는 걸음마 단계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약 540억 원이다. 그러나 이중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사회투자를 제외하면 약 180억 원 수준으로 한국의 임팩트 투자 산업은 아직 태동기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임팩트 투자 기관들은 초기의 사회적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도 대부분 3억 원 미만에 머물러 있다.
국내 임팩트 투자의 장점은 분야가 비교적 다양하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의 비중이 높고, 이 밖에도 자원재활용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민간 주도의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 활성화 시작

임팩트 투자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재단, 개발금융기관, 상업은행, 사모펀드 등 약 50여 개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GIIN(글로벌임팩트투자네트워크)'이 대표적인 투자 네트워크로 손꼽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과 임팩트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15년 6월 사회적금융네트워크(SFN, Social Finance Network), 2016년 2월 사회적 투자 포럼이 결성되는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노력과 실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투자 포럼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투자 및 금융 전문가 등 23명이 함께하며 임팩트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민간 중심의 SFN은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KIIN), 사회적금융연구회(SoFiA), 사회적가치평가네트워크(SIEN)의 세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약 60개 임팩트 투자 및 벤처 자선 기관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다.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의 향후 전망

향후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 초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민간 중심의 생태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이다. 임팩트 투자 시장 형성기에 발생하는 전반적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관련 법제화 및 인센티브 도입,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각계 인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임팩트 투자 기관 설립 및 약 2,000억 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 펀드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2017년은 임팩트 투자 진흥의 원년으로, 도약하는 국내 임팩트 투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자료 : 박희원(2017), 국내 임팩트 투자 동향과 시사점, 미래전략개발부

국내 임팩트 투자기관의 건당 투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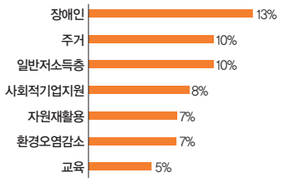
구분	1억 원 미만	1~2.5억 원	2.5~3억 원	5~10억 원	10억 원 이상
건수	32건	24건	17건	8건	8건
비중	36%	27%	19%	9%	9%

국내 임팩트 투자기관의 투자 수단

구분		지분투자	전환사채	대출	혼합형	보조금
한국사회투자 제외한 9곳	건수	74건	10건	9건	6건	1건
	비중	74%	10%	9%	6%	1%

자료 : 라준영(2016), "사회영향투자의 동향과 전망" 재구성

국내 임팩트 투자 분야



주 : 투자 건수 기준(상위 7개 분야)
자료 : 라준영(2016), "사회영향투자의 동향과 전망" 재구성

임팩트 투자 국내 현황

국내 주요 임팩트 투자 기업

D3쥬빌리	개요	사명 : 사회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 대표 : 이덕준 (영국계 자산운용사 슈로드, 씨티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FB) 등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경험을 쌓고, 2000년대 G마켓의 나스닥 상장 이끔)
	규모	기업 당 2,000만 원~1억 원
	운영 방식	투자한 소셜벤처가 후속 투자를 받거나 인수합병(M&A) 시 투자금 회수(Exit)
	중점 투자	교육 · 헬스 · 에너지 · 금융 · 공유 경제 등
	주요 투자 기업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금융), 노리(교육), 눔(모바일 헬스케어)
MYSC	개요	사명 :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비즈니스로 적극적으로 푸는 것을 지원 대표 : 김정태 (유엔 경제사회국(UNDESA) 산하기관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에서 5년간 홍보담당관 근무)
	규모	기업 당 2,000만원 ~ 1.5억 원
	운영 방식	대기업 등과 협력 연계주선, 지분투자와 함께 경영지원 및 교육, 네트워킹 지원
	중점 투자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장애인, 탈북민 등)
	주요 투자 기업	메자닌아이팩(자립을 돕기 위한 상자를 제조 및 납품), 요벨(탈북민 고용 카페), 디스럽션(디자인씽킹 기반의 놀이 플랫폼), 커피지아(자폐성 장애인 고용 원두 로스팅 기업)
sopoong(소풍)	개요	사명 : 사회문제를 시장 안에서 벤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소셜벤처에 투자 대표 : 한상엽 (소풍의 초기 투자를 받은 소셜 벤처 '위즈돔'의 창업자)
	규모	기업 당 3,000만원 ~ 2억 원, 누적투자 32개소
	운영 방식	• 지분 투자와 함께 창업 교육과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액셀러레이팅(기업 육성) 프로그램 론칭 : 어반비즈서울(도시양봉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동구밭(발달장애인 사회성 함양을 위한 텃밭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페땅(인디 밴드 후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어픽스(유아용품 중고 거래 서비스), 비플러스(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P2B 대출 플랫폼)
	중점 투자	• 다수에게 시급한 사회문제 • 공유경제, 플랫폼등 IT 기반 접근 • 도시화로 생기는 문제들에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곳
	주요 투자 기업	꼬마농부(커피 찌꺼기로 느타리버섯 재배), 쏘카(카셰어링), 텀블벅(창작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농사펀드(농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크라우드펀딩), 위즈돔(지식 인력 미팅 플랫폼)
HGI	개요	사명 : 더 빠르고, 더 지속가능하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에 투자 대표 : 정경선 (사회적기업가를 돕는 비영리단체 '루트임팩트'의 대표)
	규모	기업 당 3,000 ~ 5,000만 원
	운영 방식	• 다양성, 포용성, 웰빙이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 기업 선정 • 투자 회사지만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다양성을 존중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에 집중 • 단기간에 자금 회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이 풀고 싶어 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 함께 성장 •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기에 가능
	중점 투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및 해당 분야를 리딩하는 소셜벤처
	주요 투자 기업	두손컴퍼니(홈리스 자립 지원), 마리몬드(위안부 피해 할머니 그림으로 디자인 제품)

국내의 임팩트 투자자들

mysc · SK 행복나눔재단 ·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 SVP Social Venture Partners Seoul · HGI · D3 · crevisse · sopoong · COOLIDGE CORNER INVESTMENT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두 남자를 만나다**

국내굴지 임팩트 투자 전문기업 'sopoong(소풍)' 한상엽 대표 &
국내최초 시민 참여형 임팩트투자 플랫폼(P2B대출) '비플러스' 박기범 대표

임팩트 투자가 오작교가 되어 인연을 맺게 된 두 기업의 대표들을 만났다.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 대표와의 인터뷰는 왠지 경직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는 달리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마침 비플러스가 인터뷰 당일 아침 5천만 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 임팩트 있었던 대담 토크, 그 자유분방했던 현장을 공개한다.

Q 박 대표님 아침부터 좋은 일이 있었다고요.

박 네, 광고홍보물 제작 전문 사회적기업인 '커스프'의 신제품 개발 비용 펀딩으로 5천만 원을 모집했는데요, 오픈한 지 30분만에 바로 마감이 돼버렸네요. 모 임팩트 투자사(법인투자자)에서 한 번에 전체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 커스프라는 기업이 대단한 게, 전체 직원이 17명인데 10명이 청각장애인이고, 장애인 중 한 분이 등기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투자사도 이점을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물론 연 매출 17억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이윤창출을 했기 때문에 최종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Q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기한이 지나면 상환을 해야 하죠?

박 그렇습니다. 저희는 P2B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만기가 되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보통 만기가 1년인데, 작년에 투자 받은 2개 기업은 지난 7월 말을 기해 상환을 완료했고, 또 1개 기업은 내일쯤 상환을 마칩니다. 아직까지 저희 플랫폼을 이용한 투자자들은 돈을 떼인 적이 없습니다 하하. 저희는 투자 손실이라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 선정을 매우 신중히 하고 있고, 펀딩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기업의 꾸준한 이윤창출을 돕고 있습니다.

한 임팩트 투자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런 거죠. 투자란 돈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죠. 사후 관리를 통해 기업, 특히 신생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줍니다.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노하우, 컨설팅, 네트워크 등을 모두 투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SOcial POwer Of Networked Group(소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창업주 분이 이름을 참 잘 지으셨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비플러스는 베너핏 플러스(Benefit Plus)의 약자입니다. 베너핏이 가치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벌(Bee)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돕듯이 저희도 일반 시민들과 소셜벤처를 연결해 이로운 가치를 창출해보자는 취지를 이름에 담았습니다.

한 비플러스도 이름이 좋군요 하하. 아무튼 소풍의 방침 역시 비플러스가 추구하는 사후 기업 관리 즉, 투자 후에도 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Q 그럼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까?

한 저희는 비플러스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일반주 8%를 취했습니다. 만약 비플러스가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성장하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테고 상황에 따라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겠죠. 저희 투자기업 중 쏘카의 경우가 그런 예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수익창출은 없습니다.

Q 소풍은 투자 진행 후에 기업과 정기적인 교류를 갖고 있나요?

한 물론이죠. 투자 직후 3개월까지는 굉장히 밀착해서 주간단위로 기업을 체크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월간단위로 바뀌고,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캐주얼하게 바뀝니다.

박 저희는 소풍에게 투자 받은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고 차 마시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캐주얼하게.

"저희는 투자 손실이라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 선정을 매우 신중히 하고 있고,
펀딩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기업의 꾸준한 이윤창출을 돕고 있습니다."

'비플러스' 박기범 대표

"소풍의 투자는 프리(Pre) 인큐베이팅에 가깝습니다.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소풍은 투자 자체가 기업 생태계에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sopoong(소풍)' 한상엽 대표

Q 집중 관리 받을 때 힘든 점은 없었나요?

박 한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초기 3개월 동안은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하더군요.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인데 이렇게까지 간섭해야 하나'하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이 필요한데, 저희로서는 소풍을 통해 그런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대표님이 옆에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소풍은 2000만 원 플러스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합니다.

Q 저도 갑자기 소풍의 투자를 받고 싶어지는데요...

한 저희는 '소셜벤처 투자프로그램'을 통해 정기투자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상반기에 시작됐고, 현재 4기에 지원한 기업들을 심사하고 있죠. 최종 선정기업들에게는 아마 3000만 원(일반주 8%)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1기 출신인 비플러스 시절보다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건 36.5에 처음 공개하는 사실인데요, 하반기부터는 수시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에요.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본인의 회사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되면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희가 찾아가니까요 하하.

Q 심사에 영향을 주는 요건은 뭔가요?

한 사회적 가치와 수익구조라는 각각의 메리트도 보지만, 두 가지의 균형도 함께 봅니다. 설령 그중 한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만나봅니다. 만나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임팩트가 더 강할 것 같다", "이쪽으로 가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등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투자를 결정합니다. 소풍의 투자는 프리(Pre) 인큐베이팅에 가깝습니다.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소풍은 투자 자체가 기업 생태계에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투자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작업이 바로 소풍이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우리나라 임팩트 투자 시장이 팽창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 전 세계적으로 임팩트 투자는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점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임팩트 투자 진흥의 큰 역할은 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해줬습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사회적기업들을 키워냈으니까요. 이제는 그 사회적기업들의 후속 투자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조달을 민간이 맡아서 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고, 자연스럽게 임팩트 투자라는 영역이 정착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러 사회문제들이 정부나 시민사회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심각해지면서 투자자들이 그 문제에 눈을 돌리게 됐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자는 마인드가 생긴 겁니다. 투자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가 예전보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기존의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자금에 비해 적당한 투자처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임팩트 투자를 통해 가치와 의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거죠.

Q 최근 등장한 '아크임팩트자산운용'과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에 대한 견해는?

박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투자 루트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 기업 입장으로서는 환영합니다.

한 동의합니다. 매우 바람직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임팩트 투자를 임팩트 투자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공적자금은 앞으로 지속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적자금이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저희 같은 회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기업의 자생력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투자회사는 자금의 운용을 통해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이므로 자금이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 자금이 돌고 돌아서 또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기조를 만들어내야 하고요. 정부를 비롯한 공적자금이 지금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임팩트 투자에 있어서 정부가 상당한 역할, 특히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어색한 기류는 없는지요. 이를테면 갑을 관계와 비슷한...

한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배를 탄 겁니다. 그 키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죠. 투자자는 단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거나, 아니면 큰 수확을 올려 무사히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대항해시대에 선장이 신대륙을 발견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밥은 누가 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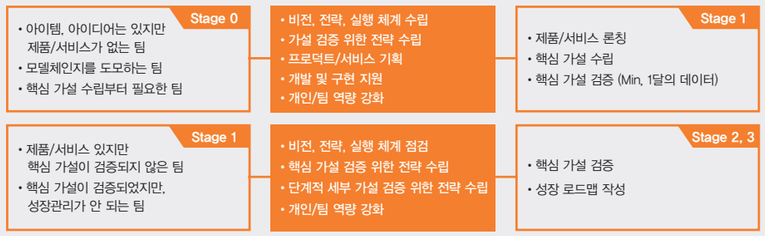
한 제가 삽니다. 우리 박 대표님이 건강하셔야 회사도 건강하고, 저희도 건강해지니까요.

sopoong 소풍

씨드 투자와 인큐베이팅 중심의 소셜벤처 인큐베이터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길 20 Homepage sopoong.net E-mail info@sopoong.net

sop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BPLUS (주)비플러스

시민 참여형 임팩트 투자 플랫폼(P2B대출)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길 20 Homepage benefitplus.kr E-mail info@benefitplus.kr

해외 임팩트 투자의 흐름

김정태 (MYSC 대표)

유자인 (MYSC CFO)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의 정의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의 투자를 의미한다. 2000년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임팩트 투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21세기 이후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만성적인 재정 부족으로 국가가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그 결과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민간 부문으로 이전되어 새로운 시장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통해 빈곤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BOP(Bottom of the Pyramid)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인류의 에너지 및 환경문제가 심각해져서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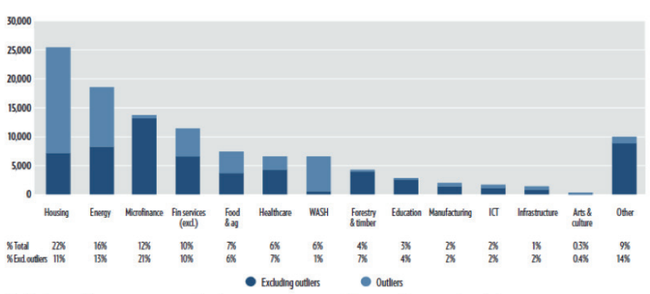
해외 임팩트 투자의 규모와 현황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이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현재까지 208개 기관에서 총 114억 달러의 투자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2016년에만 205개 기관에서 약 8,000건의 임팩트 투자를 통해 221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259억 달러가 임팩트 투자될 것으로 추산된다.

GIIN의 조사에 응답한 임팩트 투자 기관들은 대규모의 금융기관들이 임팩트 투자로 진입하여 시장을 전문화하고 필요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로 인해 임팩트 투자의 의미가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했다.

해외 임팩트 투자는 아래의 도표에서 보듯 주거 22%, 에너지 16%, 소액금융 12%, 금융서비스 10% 비중 순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는 국내 임팩트 투자가 장애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해외 임팩트 투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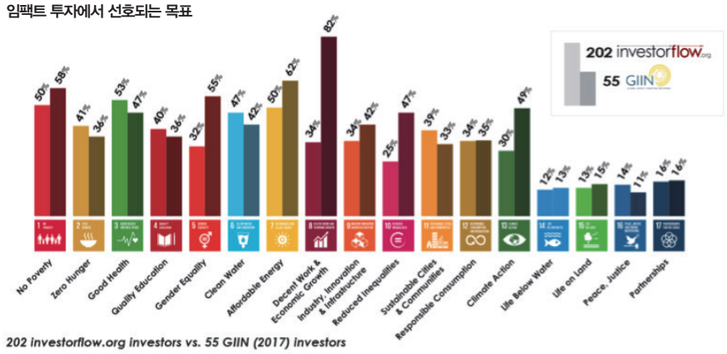


Note: 'Other' sectors include services,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tourism, transportation, community facilities, sustainable consumer products, and multi-sector investments.
Source: GIIN

해외 임팩트 투자 사례

해외 임팩트 투자자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기준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17개의 SDGs 중 선호되는 목표의 쏠림 현상도 존재한다. 선호되는 목표는 주로 1. 빈곤종식, 3. 건강한 삶의 보장, 6. 물과 보건위생, 7. 접근 가능한 에너지 등이며,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는 목표는 14.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15. 육상 생태계의 보호 및 사막, 산림관리, 16. 평화롭고 정의로운 제도 구축, 17.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등이다.

임팩트 투자에서 선호되는 목표



202 investorflow.org investors vs. 55 GIIN (2017) investors

그러나 관심을 덜 받는 목표 중에서도 보다 창의적인 임팩트 투자 접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16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 구축'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주목할 만한 접근들이 존재한다.

- 뉴미디어벤처(New Media Ventures and Matter)는 최근 시민참여와 지역사회 공감 구축 및 데이터 시각화를 목표로 한 미디어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 투자를 준비 중.
- 나이트 재단(The Knight Foundation), 민주주의 펀드(The Democracy Fund), 리타 알렌 재단(Rita Allen Foundation)은 가짜 뉴스에 맞서는 팩트체크의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 기업을 찾고 있음.
- 자유 언론에 적대적인 지역의 독립언론사를 후원하는 미디어 개발투자펀드(The Media Development Investment Fund)는 최근 새로운 대출 펀드에 네 차례 투자 집행.

임팩트 투자는 부가성(additionality)의 원칙을 토대로 하며, 이는 일반 민간 투자자에 의해서는 자본화될 수 없는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다. 투자자들이 잘 찾지 않는 SDGs 목표의 분야들에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임팩트 투자의 의미에 더 부합하며 또한 더 큰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임팩트 투자의 시사점

국내 임팩트 투자는 규모 면에서는 아직 태동기로 볼 수 있으나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되고 있다. MYSC도 메자닌아이팩(탈북민 고용형 인증 사회적기업) 등 여러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에 초기 투자를 진행하였고, 최근에도 원두 로스팅 기업인 '커피지아'(자폐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디자인씽킹 기반의 놀이 플랫폼 '디스럽션'(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자하며 추가 투자를 계획 중이다.

MYSC뿐만 아니라 여러 임팩트 투자 기관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민간 중심의 재원 노력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국임팩트금융'의 발족 등과 같이 이전의 초기 기업들에 적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규모 있는 성장을 돕는 임팩트 투자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향후 시장이 확대되더라도 임팩트 투자는 부가성의 원칙을 가지고 운용되는 인내 자본임을 인식하여, 일반 민간 자본이 투자하지 않아 투자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나 임팩트 투자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라준영(2016), 사회영향투자의 동향과 전망 / 박희원(2017), 국내 임팩트 투자 동향과 시사점, 미래전략개발부
GIIN, 2017, Annual Impact Investor Survey / Dennis Price, 'Which of the 17 U.N. global goals do impact investors prefer?', Impactalpha article
Jessica Pothering, 'Yes, peace, justice and strong civic institutions are investable opportunities',Impactalpha article

休 살어리 살어리랏다 구름에 살어리랏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7채의 고택이 구름처럼 두둥실

'구름에 리조트'는 유실 위기에 처했던 안동의 고택들을 되살린 국내 최초의 전통 리조트다. 전통 한옥의 고풍스러운 건축미에 현대적인 편리함을 접목해 격조 있는 고택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비의 고장 안동이 자랑하는 전통 고택에서 느긋한 休 만끽

고택하면 언뜻 떠오르는 불편함과 비위생은 구름에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고택의 원형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쾌적한 욕실과 화장실, 냉난방시설, 첨단 보안 시스템까지 완비해 안락함은 물론, 프라이버시와 안전까지 확보했다. 여기에 조식 서비스, 도어맨 서비스, 웰컴 서비스(웰컴 티, 푸드 제공),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픽업 서비스 등 5성급 호텔 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릴 수 있다.

'구름 위의 행복한 마을', '구름과 맞닿아 있는 행복한 마을'이라는 뜻을 지닌 구름에는 SK행복나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와 손잡고 설립한 사회적기업 '행복전통마을'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의 수익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소 : 경북 안동시 성곡동 745 (안동시 민속촌길 190)
예약문의 : 054-823-9001
info@gurume-andong.com

다양한 전통체험과 신개념 독서문화공간 북카페 'Gurume Off'

구름에는 전통문화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무신 · 부채 그리기, 고추장 담그기, 전통혼례 및 한복체험 등 안동의 역사성과 지역성에 기반을 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은 타 지역에서는 접하기 힘든 진귀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최근 오픈한 '구름에 오프(Gurume Off)'는 리조트 내에서 약 1,300권의 인문학 서적과 브런치, 음료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북카페로, 여행과 책을 통한 아날로그 감성을 발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스패니시 레스토랑 떼레노는 이미 미식가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흔히 접할 수 없는 '제대로 된' 스페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작년에는 대한민국 미식가 100명이 선정한 10대 레스토랑에 선정된 바 있다.

좋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희망도 나누고

떼레노(Terreno)는 스페인어로 땅, 대지를 뜻한다. 스페인의 정열과 대지의 따스함을 담은 음식으로 취약계층의 새로운 희망을 키워내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알고 보니 떼레노는 사회적기업 (주)오요리아시아가 운영하는 곳이다. 오요리아시아는 아시아 이주여성들과 국내 취약계층 청년들을 전문 요리사로 키워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해외로도 사업을 확장해 태국과 네팔에 오픈한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현지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 같은 해외 사회적기업 활동은 아시아 빈곤여성들이 돈 벌러 한국에 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1 (가회동, 2층)
예약문의 : 02-332-5525
영업시간 : - Lunch 11:00 - 14:30 (Last order 14:00)
- Dinner 17:30 - 22:00 (Last order 20:30)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나는 스페인 정통 요리의 풍미

떼레노의 대표 요리 '메뉴 데구스타시온(Menu De-gu stacion)'.
6~9개의 다채로운 스페인식 코스 요리로, 계절에 따라 채소, 해산물, 육류 등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스페인 음식의 정수를 맛볼 수 있다. 코스에 포함된 요리는 대부분 단품으로도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와인과 가벼운 식사를 즐기고자 하는 고객들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 물론 전문 소믈리에를 통해 스페인 음식과 잘 어울리는 전 세계 다양한 와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 이 밖의 인기 메뉴로는 염장 대구, 이베리코 돼지 플루마, 랍스터를 넣은 발렌시아식 쌀 요리, 한우 안심스테이크 등이 있다.

食 북촌 한옥마을에서 즐기는 스페인 요리 떼레노

착한 쇼핑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e-store 36.5는 365일 언제나 꿀잼!

환경, 건강, 보람, 재미까지 챙기는 실속만점 e-store 36.5에서
이 여름 써머에 딱 어울리는 물건들을 득템했다.

www.e-store365.or.kr

자연숨결 대나무 항균 타올

타올 1장 6,600원 2장 세트 13,000원
행주 겸 손타올 2장 세트 7,000원
(주)리플라워 www.reflowermall.co.kr

좋은 타올을 사용하지 않으면 타올에 세균 번식이 쉽게 일어나고, 타올의 거친 표면에 피부가 자극을 받아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연숨결' 대나무 타올은 100% 천연 대나무 성분을 추출해 만든 제품으로, 아기 피부까지 보호해주는 부드러움은 물론, 우수한 통풍성과 흡수성을 자랑한다. 게다가 유럽 에코텍스 인증(친환경 인증)까지 획득했다. 유럽 에코텍스 인증(Oeko-Tex Standard 100)은 섬유 유해 성분과 관련된 평가를 위해 설립된 공신력 있는 유럽의 섬유인증기관으로, 100가지 이상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소재를 엄선하고 있다. 자, 돌잔치와 칠순잔치에서 받아온 타올은 잠시 개어두고, 잦은 샤워로 지친 피부에게 안락함을 선물해주자.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자매품, 대나무 행주!

창포헤어바 비누 & 화장지움 비누

개당 4,300원
(유)천향 www.skysoap.kr

하늘이 내린 향기 '천향'은 청정 강원도 강릉에서 100% 순수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천연비누를 만들고 있다. 천향의 전매특허는 시중에서 20%가 채 되지 않는 'CP(Cold Process)비누'. 숙성비누라고도 불리며, 비누의 기초가 되는 베이스 오일부터 첨가물까지 직접 계량한다. 따라서 제조 소요시간이 약 4~6주가량이나 걸린다. 대표 상품인 '창포헤어바 비누'는 물샴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누로, 모발과 두피에 좋은 성분인 동백오일, 창포 추출물 등을 넣어 모발에 윤기와 영양을 공급하고, 모근을 튼튼하게 해준다. 클렌징폼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지움 비누'는 숯 분말과 포도씨오일로 클렌징 및 노폐물, 피지제거 효과에 탁월하다. 천연비누로 피부도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해보는 건 어떨까.

트립티 에코 친환경 텀블러

8,000원
(주)트립티 www.tripti.co.kr

요즘엔 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의문이 든다. "내 텀블러는 과연 안전한 제품일까?" 바로,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트립티 에코 친환경 텀블러는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친환경 바이오 에코젠 보틀로 만들어졌다. 에코젠이란 SK케미칼에서 개발한 신소재로 옥수수와 밀 등의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해 만든 합성수지다. 이 제품은 충격에 강하고 얼룩과 냄새가 나지 않는다. 특히 무게가 가벼워 테이크아웃 하기에 편리하고 티망(티백 넣는 망)까지 갖추고 있다. 공정무역 커피로 유명한 트립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 더더욱 믿음이 간다. 참고로 트립티는 네팔어로 '참 좋다', '맛있다'라는 뜻이란다. 트립티 텀블러에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담아 마시면, 이 말이 절로 나올 것 같다. "아~ 참 좋다, 맛있다!"

천연향초 카네이션 & 반려동물 냄새제거 캔들

각각 12,000원 / 30,000원
(사)에코언니야 www.ecosister.or.kr

기분까지 축축 처지는 장마철, 게다가 올 여름엔 어찌나 비가 많이 오는지. 눅눅한 집안 분위기를 캔들 향기로 프레시하게 전환하자. 4,50대 주부들이 함께 만든 사회적기업 '에코언니야'가 자랑하는 천연향초 카네이션은 유해물질인 파라핀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KC마크를 획득한 안전제품이다. 화이트 가드니아를 사용한 은은한 꽃향기는 기분이 우울하거나 지쳐 있을 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장마철에는 반려동물들의 꿉꿉한 냄새도 더 심해진다. '반려동물 냄새제거 캔들'은 에센셜 오일로 만들어 동물들의 냄새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캔들 하나 밝혔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 업! 반려동물 기분도 업업!! 단, 초를 켠 채로 외출하거나 잠들면 절대 안 돼요!

석고방향제 DIY 키트

28,000원(5인용)
(주)팝그린 popgreen.co.kr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여름방학이 여간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은 뭐 하지?" 그래서 아이와 함께 집안에서 저비용으로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름하여 '석고방향제 DIY 키트'. 말 그대로 석고를 이용해 스스로 만드는 방향제이자,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이다. 다섯 종류의 오일은 각각 기분전환, 피로회복, 심신안정, 숙면, 식욕증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완성된 제품은 인테리어 효과가 커 시각과 후각을 모두 만족시킨다. 사용기간은 3개월 정도지만 스포이트로 프래그런스 오일이나 향수를 3~4방울 정도 뿌려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이들의 만들기 방학 숙제로 제출해도 좋을 듯!

보디가드

10,000원
(주)새벽 www.saeb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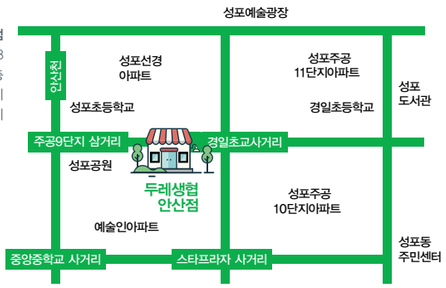
여름철 휴가로 가족캠핑이 유행하면서 해충퇴치제가 필수품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해충퇴치제가 해충과 함께 우리 가족 특히 우리 아이의 연약한 피부까지 퇴치(?)할까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그러나 천연해충퇴치스프레이 '보디가드' 하나만 있으면 해충은 물론 인체유해성분 걱정 끝! 즐겁고 안전한 캠핑 및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다. 보디가드는 정제된 천연 추출수와 항균, 항박테리아 기능을 가진 천연아로마오일의 배합으로 각종 해충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다. 이 제품은 온몸에 뿌릴 필요 없이 적당량을 손목과 발목 부위에 뿌려주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게다가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레몬오일, 로즈마리오일 등의 함유로 은은한 향기를 풍겨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어머 향수인줄!"

store 36.5 ansan grand open!

사회적기업과 생활협동조합의 건강한 만남, 스토어 36.5 안산점 그랜드 오픈!

지난 7월 25일은 동네 잔칫날이었다. 제종길 안산시장과 오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김혜정 두레생협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스토어 36.5 안산점의 시작을 축하했다. 2017년 처음으로 문을 여는 스토어 36.5라서 더욱 의미가 깊었고, 조용하기만 했던 주택가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차 즐거움이 배가 되는 날이었다.

두레생협 안산점
전화번호 : 031-413-0038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로 301층
운영시간 : 평일(월~금) : 오전 10시 ~ 오후 9시
토,일,공휴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착한 제품으로 가득 찬 안산점으로 오세요!

스토어 36.5 안산점은 세월호 피해 지역인 안산시 내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경기남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선정되면서 조성됐다. 안산점은 사회적경제 복합매장을 표방한다. 두레생협 제품과 사회적기업들의 제품이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물건이 매대 1, 2개에 진열된 숍인숍의 개념이 아닌,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사회적기업 제품 중에는 샴푸, 비누, 세제, 공정무역 제품 등의 인기가 높다고 한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도 끄떡없는 건강 먹거리로 가득

안산점은 마트형 친환경유기농생활제 매장이다. 여기에 축산(정육)코너라는 차별화 아이템을 장착했다. 경기남부두레생협 최초로 대면판매 즉, 점원이 소비자에게 고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직접 고기를 썰어주는 영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통 생협매장의 경우 카페나 베이커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안산점은 주택가 주부들을 겨냥해 축산을 선택했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안전한 먹거리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생협 제품들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고, 계란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 향후 안산점은 보다 많은 사회적기업과 빵집아저씨들협동조합, 협동조합찬찬(반찬 제조) 등 안산지역 협동조합들의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스토어 36.5 매장 하나 들어선 것뿐인데, 벌써부터 안산의 사회적경제는 물론 소비자들의 식탁이 건강해지고 있다.

스토어 36.5의 나비효과

이 용 진 경기남부두레생협 상무

"매장 주변이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라서 주부님들이 굉장히 반겨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부님들을 위한 요리강좌와 사회적기업 강좌를 열어 호응에 보답하고 있죠. 문을 연지 한 달도 되지 않은 걸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살충제 계란 파동은 매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저희 생협 계란의 안전성이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생협 제품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거죠."

스토어 36.5 안산점 오픈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소비자가 커다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안산시와 협의해 내년쯤 매장 하나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안산의 사회적경제 발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 기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이 가능한 '사회적 가치 지표(SVI)' 개발

지난 7월 7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사회적 가치 지표(SVI : Social Value Index)'가 개발, 공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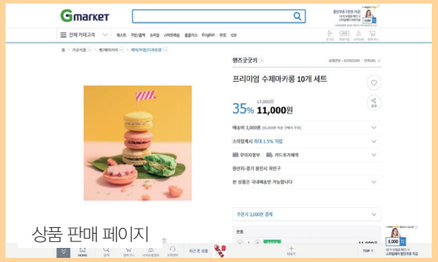
총 14개의 세부 측정지표로 구성된 사회적 가치 지표를 통해 이제 기업은 기존의 경제적 성과 중심의 평가 외에도 사회적 가치 지향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참여적 의사결정 등의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 우수기업에 투자 등을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일반 기업 역시 자신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가치 지표는 진흥원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가치 확산 메뉴의 '자가진단 도구(KIT)'를 통해 쉽게 측정이 가능하다.

기획전 메인페이지

상품구성 페이지

박람회 홍보 및 SNS이벤트 페이지



상품 판매 페이지

2 G마켓/옥션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

진흥원은 사회적기업 10주년을 기념하여 국내 대표 오픈마켓인 G마켓과 옥션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했다. 6월 19일(월)부터 7월 2일(일)까지 진행된 기획전은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40개 기업의 220여 개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였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윤리적 소비의 실천과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전달하였고, 판로개척에 난관을 겪는 기업들이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판로를 확대하였다. 온라인 기획전 상설페이지는 10월 6일(금)까지 운영되며, G마켓/옥션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3 소셜캠퍼스 온(溫) 전북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개소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溫) 전북'이 지난 7월 17일 개소하였다. '소셜캠퍼스 온(溫) 전북'은 창업공간 및 비용, 교육과 멘토링 등 창업을 위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현재 입주한 50여 개 기업은 사회적 가치 추구와 고용 현황 등을 포함한 중간평가 과정을 거쳐 최대 2년간 맞춤형 성장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 지역 소외계층 고용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소셜캠퍼스 온(溫) 전북'은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4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사 연수 개최

진흥원이 고용노동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교사 연수'를 성공리에 마쳤다. 지난 8월 7일(월)에서 10일(목) 동안 진행된 연수는 2016년 개발된 '사회적경제 교육 표준안'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를 처음 접하는 교사도 표준안의 내용체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 또, 참여한 교사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사회적경제 수업 교안을 작성하는 등의 활동도 설계했다. 연수 이후로는 교사들이 표준안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수업을 진행한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중이다. 향후 표준화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Q 사회적기업 지원을 받게 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인건비 지원	전문 인력 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상세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 (한도)월 200만 원, (지원인원) 1명, (자부담률) 1년차 10% → 2년차 20% – 사회적기업 : (한도)월 200만 원, (지원인원) 2명, (자부담률) 1년차 20% → 2년차 30% → 3년차 50% * 단, 유급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전문인력을 지원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회적기업 1년차 지원비율부터 적용 – 지원기간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년	○	○
	일자리 창출 지원	■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상세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비율 : ① (예비)1년차 70% → 2년차 60% ② (인증)1년차 60% → 2년차 50% → 3년차 30% (+20%, 계속 고용시) – 지원기간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년	○	○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상세내용 – 지원한도 : (예비) 연간 5천만 원, (인증) 연간 1억 원(최대 3억 원) – 자부담율 :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 지원기간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년	○	○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상세내용 – 지원인원 : 최대 50인 한도 – 지원기간 : (인증) 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	—	○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 세무 · 노무 ·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상세내용 – 기초컨설팅 : 총 3회, 최대 5백만 원 (* 지원기관으로 신청) – 전문컨설팅 : 총 5회, 금액 한도 없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신청) * (예비) 연 1,000만 원 이내로 지원금 지급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83개소 ('16년)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 ·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 시설비 등을 지원 · 융자하거나 국 · 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금융만 가능	○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 · 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 등록 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비영리단체 · 법인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 법인 · 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	○
모태펀드		■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 (투자운용사)	○	○

Q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을 증빙할 때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회서비스 실적의 경우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을 기타형으로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산출해 제시해야 하며, 공신력을 갖고 있는 서비스 위탁계약서, 협약서, 서비스 제공 확인서 등을 제출해 증빙해야 합니다.

Q 기업 설립을 하고 바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가운데 영업활동을 평가하는 기준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설립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영업활동이 사회적 목적 달성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Q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인증 조직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육성법 제8조 제1항 각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조직형태를 갖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정관변경에 시일이 걸려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불가한 경우, 당해 회차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나요?

A 정관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주무부처 승인, 공증, 등기 등)만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 신청하고, 인증 심사 시까지 보완하면 됩니다.

Q 유급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등의 형태에만 한정되나요? 또한 사실확인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A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력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평가합니다. 단, 자원봉사자,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유급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확인서 작성 시 기준 시점은 신청 시점의 전달 말일입니다.

Q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구현하는 조직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자본 소유에 따른 특수 이해관계자만으로 의사결정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 대표, 수혜자 대표, 지역사회 인사, 유관기관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러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Q 사업은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 현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매출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으로 인정이 되나요?

A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되므로 현금으로 회수되지 못한 매출의 경우에도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하여 제출된 자료라면 영업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 기록과 계상이 되도록 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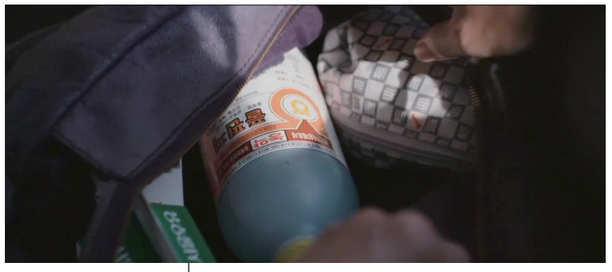
Q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A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내 사회적기업 설립 – 사회적기업 인증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관련 페이지 내의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리스트를 참조하여 해당 지역의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슴을 아리는 긴 여운의 이야기…
결코 짧지 않은 단편영화 〈아리〉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좀처럼 극복하기 힘들다. 여린 가슴에 새겨진 생채기는 불현 듯 떠올라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곤 한다. 구상범 감독의 단편영화 〈아리〉는 바로 그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에 꿈의 상실, 현실의 아픔,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가족애와 생명의 소중함까지 아우른다. 그것도 1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아리〉는 지난 5월에 개최된 제70회 칸영화제 비경쟁 단편영화 부문(Short Film Corner)에 공식 초청받아 화제를 모았다. 〈아리〉와 함께 직접 칸으로 날아간 구상범 감독은 "우리와 비슷한 감성을 공유하는 일본인 감독뿐만 아니라 미국인 감독과 이란인 제작자가 아리를 보고 감동받은 것에 놀랐다"면서 "특히 이란 제작자가 두 번이나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영화가 주는 범세계성에 나 또한 감동받았다"라고 말했다.



나라엄마는 딸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싣는다. 엄마와의 여행에 한껏 들뜬 나라와는 달리 차창 밖을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은 무표정하다 못해 차갑기까지 하다. 엄마가 손수건을 꺼내기 위해 연 가방 안으로 언뜻 보이는 농약병에서 두 모녀의 종착역이 심상치 않음이 느껴진다.

한적한 시골의 수녀원. 꽃단장을 한 소녀 가은이 수녀님을 따라나선다. 손꼽아 기다렸던 양부모를 만나는 날. 가은은 불편한 다리를 끌고 엄마, 아빠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간다. 하지만 그들은 가은의 다리와 입양 서류를 번갈아 보며 정색한다.
"아니 너, 다리가… 원래 그런 거니?"
가은은 그만 주저앉아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개구쟁이 녀석들이 교실 창문 아래로 가은을 향해 병아리를 던진다. 다리를 다친 병아리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품은 가은은 병아리에게 아리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나라엄마는 딸과 함께 먼발치에서 지켜본다.

〈아리〉는 구상범 감독의 두 번째 장애인 영화다. 지체장애인이 주인공이었던 2006년작 〈연시〉는 그 해 제주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고, 2010년 장애인영화제에 출품됐다. 〈아리〉 역시 오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합정 롯데시네마에서 열리는 제18회 장애인영화제에 경쟁작으로 초청돼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아리〉는 여러 가지를 떠오르게 한다. 마지막 공과금과 월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부터 고 신해철(넥스트)의 날아라 병아리까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단면, 잃어버린 동심의 아련함이 혼재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코끝 찡한 쓰라림을 선사한다. 그렇지만 다행이다. 아리는 비극이 아니어서. 해피엔딩이어서.

아리를 위로하며 집으로 향하는 가은에게 또다시 개구쟁이들이 나타나 놀려대기 시작한다.
"병신이 병신 병아리랑 말을 한데요. 말을 한데요!"
가은은 다부지게 아이들을 쫓아내지만 이내 참았던 눈물을 툭툭 떨군다. 어느새 가은에게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엄마.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인다.

가은은 강가에 앉아 가만히 아리를 바라본다. 아리는 마치 자신처럼 하늘을 날아 엄마 아빠에게 가고 싶은 모양이다. 가은은 아리가 날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한 후, 하늘을 향해 아리를 힘껏 놓아준다. 하지만 아리는 강에 빠지고, 소중한 친구를 잃은 가은은 또 다시 엉엉 운다.

가은이 앉았던 강가에 나라엄마가 앉아있다. 농약을 두 개의 우유팩에 나눠 따르고는, 집주인에게 마지막 월세를 우편함에 넣었다는 문자를 보낸다. 우유를 들고 딸에게 걸어가는 나라엄마, 다리를 전다. 아무것도 모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나라는 마침 병아리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엄마를 부른다. 나라는 병아리에게 삐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즐거워한다. 나라의 삐약이, 나라엄마 아니 가은의 아리가 두 사람에게 날아들었다. 마침내 가은은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나라와 아리를 서럽게 안았다.

임팩트투자
자본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은이 안토니 레빈, 제드 에머슨
번 역 강신일, 권영진, 김수희
출판사 에딧더월드
가 격 24,000원

임팩트 투자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세계경제에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팩트 투자에 대한 국내 최초의 입문서다. 비록 국내의 임팩트 투자는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단계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투자의 한 축으로 당당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에는 임팩트 투자의 역사는 물론이고, 두 저자가 임팩트 투자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직접 경험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미국 록펠러재단에서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윤 창출에 대해 연구한 저자 안토니 레빈은 '임팩트 투자'라는 말의 창시자이자 국제임팩트투자네트워크(GIIN)를 구축한 장본인이다. 또 다른 저자 제드 에머슨은 미국 최초의 벤처자선펀드 가운데 하나인 REDF(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의 설립이사로, 1996년에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측정하는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를 개발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두 사람의 임팩트 투자 마스터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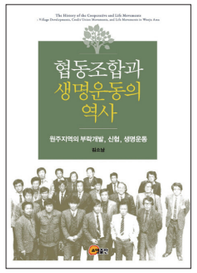
착한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임팩트를 창출하기 원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영리 단체들과 사회적기업들,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에 대해 고민하는 정책 집행자들, 임팩트 투자를 유치하고 연결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 등, 모두에게 이 책은 대단히 유익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응답하라 사회적경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대안

지은이 조재석
출판사 나녹
가 격 18,000원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다. '자본주의의 SOS에 사회적경제가 응답하는 방법'. 오랜 시간 동안 전성기를 누려왔던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했고, 그 문제점들을 사회적경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고, 사회적기업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접할 수 있어 반갑다. 최근 '응답하라 1988'의 두 배우 '혜리'와 '류준열'의 열애 소식이 화제를 모았다. '사회'와 '경제'라는 언뜻 상반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두 남녀의 열애처럼 사회적경제 안에서 뜨겁게 응답하길 바란다.

협동조합과 생명운동의 역사



지은이 김소남
출판사 소명출판
가 격 49,000원

현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운동은 생활협동조합이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세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미 앞선 세대가 한국형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해왔던 사실에 주목한다. 즉, 이 책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민간 주도의 '협동조합'과 '생명운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과거의 한국형 협동조합운동 정신은 남북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질서 구축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와 미래의 통일한국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10주년 기념 3대종교(가톨릭, 기독교, 불교) 공동행사

2017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실천

사랑과 나눔의 오병이어
오병이어란
이 천년 전
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이 나눠 먹은
기적의 나눔운동 사건입니다

일시 2017년 9월14일 (목) 10:00 ~ 15:00
기념식 11:00 ~ 11:50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F (서울 종로5가 소재)
행사내용 공연 – 시상식 – 결연식 – 전시관 운영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한국기독교장로회
협력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카리타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HSE 불교신문부설 사람과사회적경제
주관 | 기독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후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